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6호 [루게 제23453호] 주제100 (2011)년 5월 16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 3대혁명 소조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식의 자조전국생산기술개발과 도입에서 모범을 보인 발명총국, 부형합금철공장, 청진제강소 일군들과 근로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이들은 야금로들에 쓰이는 자조전국을 폭스와 흑연대신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완성하고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혁신적안목으로 자조전국생산에서 최첨단을 돌파한 이 성과에 의해 금속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없앨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로력과 연료, 전기를 절약하여 나라에 막대한 리익을 주게 되었다.

발명총국 일군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집단주의를 구현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

접히 결부시키는데 대한 당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제철소, 제강소들이 나가 무연탄자조전국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새 기술개발에 적극 기여한 부형합금철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조전국생산기술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종전보다 생산성을 훨씬 높이고 로동조건을 개선하였다.

청진제강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청년과학자들에 대한 당의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창조적해와 힘을 합쳐 새 기술도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과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보다 큰 과학기술성공과 강성대국건설에 기여할 혁명적열의를 넘쳐있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만세! 에리오피아 단체 성명 발표

에리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3차 확대회의 결정서와 주체사상과 라틴아메리카에서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지역 주체사상토론회에서 채택된 전세계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여 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사상사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대정축전으로 기념하기 위

하여 2012년 태양절을 맞으며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는것은 너무도 웅장한 것이다.

우리는 이 대회가 명실공히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김정일각하께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주석의 위업을 계승해나가신다는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전세계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계기

인 주체사상세계대회에 참가하여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조선인민과 함께 뜻깊게 기념할것이다.

당면하여 우리는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활동하고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 신봉자들과 함께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주석의 탄생 100돐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조시켜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만세!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조선중앙통신】

## 자주위업의 앞길을 밝히는 백전백승의 기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지난 20년간 190여개 나라에서 50여개 어종으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제 80 (1991)년 5월 5일로작에서 진보적인인류에게 사회주의건설의 불멸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신 이후에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리론실천적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들은 지난 20년간 190여개 나라에서 50여개 어종으로 출판되었으며 정당, 단체들과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서 1만 2 000여회에 걸쳐 토론회, 강연회, 독보회, 해설모임 등의 형식으로 널리 연구 보급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이야말로 진보적인인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사회주의위업과 세계자주위업수행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사상리론적기치이라고 세계가 공인하고있음을 증시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열을 가지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나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은 발표되자마자 그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미증유의 전인력을 가지고 단사설의 신장을 틀어잡았다.

인류가 건설해야 할 참다운 사회주의사회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준 기치비적문헌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90여개 나라에서 20여 개 어종으로 출판, 발행하였다.

로작을 중국의 《인민일보》, 쿠바신문 《그라마》, 타이완 《성심일보》, 에리트리아 《알 마사이야》, 말라시야 《오리존트》, 일본의 《마이니찌신문》 등 각국의 신문들이 전문 또는 요지로 실었다.

로씨야령회 및 통일당, 도이쉴란 드공산당,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조선인민파의 친선문화원대성 에파드로 파란다협회, 라오스국가출판사, 기네 베르뒤르 출판사, 페루 까사모다출판사 등 많은 단위들에서는 로작을 단행본과 불계전, 전자도서로 출판하고 발행권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발행식들에서 각계 인사들은 로작이 오늘의 력사적시대에 맞게 사회주의를 풍부히 한 강령적 문헌이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들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무기라고 격찬하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진정한 사회주의의 진로와 혁명적당 건설의 근본원칙을 명시한 《사회주의의 근본원칙》 력사적교과서와 《사회주의의 당의 총론》,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에 대하여》는 발표된 후 몇달안에도 중국, 영, 로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0여개 어종으로 수십개 나라에서 출판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편이여 발표하신 불후의 명저들인 《사회주의에 대한 회답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은 앞세우려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조건이다》도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진보적인인류들은 《사회주의는 진보적인인류의 심장속에 살아있다》, 《광명은 동방에서부터 비쳐오고있

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당선언)》이라고 하면서 로작출판사업을 활발히 벌리었다.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는 원수들에게 원력을 가하고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승리의 필연성, 자주위업수행의 근본방도를 밝혀주는 이 로작들은 1990년대 후반기에 문헌집과 단행본으로 54만여부나 발행되었으며 그 어종만도 41개나 된다.

우리 나라 혁명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이며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준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대 대하여》 등의 로작들을 로씨야, 몽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에파드로, 칠레, 체코, 말라, 핀란드, 뉴질랜드를 비롯한 수 많은 나라들에서 출판하였다.

변천된 시대환경에 맞는 사회주의정치방식과 경제건설에 관한 사상리론이 집대성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에 대한 출판업기는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높아졌다. 세계가 경탄하는 선군사상과 리론이 전면적으로 세계화되고 자주시대 국가발전의 총적방향과 전략이 뚜렷이 명시된 선군정치에 관한 불멸의 로작들이 100여 개 나라에서 발행되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선군혁명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 당의 령도 따라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 모내기 시작부터 기세를 올린다

각지 농촌들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5일현재 서해공방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남포시, 함경남도안의 농촌들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철적으로 하여 알곡수확고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수령년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 결의안고 모내기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모내기 일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운 농업부서 일군들의 전투적인 작전과 지휘, 농촌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모내기 작업이 쉼없이 이루어지고있다.

안양군 오곡, 재령군 삼지강, 신천군 백석, 청단군 청정, 강령군 내동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평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에 앞장섰다. 연안군, 배천군을 비롯한 군들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토양특성에 맞게 씨뿌리기를 앞세우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정정적 벼모를 내고있다. 평안남도에서도 모내기가 시

작되었다. 도일군들은 벼수직 파를 먼저 울려 모내기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지난 기간 수직파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한 중산군 풍정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수직파를 계절에 일적으로 끝냈다. 도에서는 어버이수령년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지난 5월 10일 첫모를 내는것으로 올해의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상팔협동농장에서 창안한 다기농모내는기계를 올해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받아들여 기계모내기비중을 높일 목표를 내세운 문덕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기실적이 뛰어오르고있다.

모내기를 앞세우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며 모내기를 철적으로 하고있다.

—재령군 부덕협동농장에서—

모를 내신 40개가 되는 뜻깊은 날을 맞으며 첫모를 낸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남포시안의 농촌들에서는 기계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면서 모내기시작을 갈고였다.

봉산군, 강계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은 씨뿌리기를 확고히 앞세워놓고 모내기를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다.

함주군, 금야군, 흥원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도 일일계획을 바로세우고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본사기자 김 향 탄

모를 내신 40개가 되는 뜻깊은 날을 맞으며 첫모를 낸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남포시안의 농촌들에서는 기계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면서 모내기시작을 갈고였다.

봉산군, 강계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은 씨뿌리기를 확고히 앞세워놓고 모내기를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다.

함주군, 금야군, 흥원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도 일일계획을 바로세우고 모내기를 시작하였다.

본사기자 김 향 탄

해산청년광산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르다.

광산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개선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때문에 수행하는 결사적 열의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지난 4월 해산청년광산은 찾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대고조진군에 과감히 떨쳐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는데 대해 축하하시면서 유색금속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광산의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지장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높이 받들고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칼같이 떨쳐나 일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해산청년광산 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 행정일동지께서는 단단히 이끌고 나가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자랑찬 로적성과로 보답하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선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전투장들을 들끓게 하면서 선광, 운반, 채굴계통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서 혁신적성과가 이룩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연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해산청년광산 일군들이 선취하는 바로 정하고 중시공리에 역량을 집중할수 있게 적극 도와주고있다. 또한 로동자, 기술자들이 채굴 및 운반계통과 선광설비들의 현대화를 힘있게 내밀며 전반적인 생산공정이 개선되는데 맞게 기체관리용 개하여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광산일군들은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단행하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대고조진군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려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광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선광계통의 현대화를 맡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투추진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넣어 선광장내의부진 속공사, 종합조종실건설, 설비 및 배관설치 등 모든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여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 있다. 운반계통을 맡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콘베이어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로동자, 기술자들은 채굴계통을 하루빨리 복구완비하여 풀이놓은 광석을 광망 생산할 불타는 마음안고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해산청년광산소아매 윤송, 갑산광산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달리는 로동자들과 공사에 동원된 과학자들의 열의도 대단하다.

연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의 안내들과 해산시의 녀맹원들은 김철의 녀성들처럼 강성대국건설에서 한훤 단단히 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로동자, 기술자들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 석탄증산투쟁에 더욱 박차를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에서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에서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연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탄광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부속품보급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또한 탄광들에서 매장장이 풍부한 새 구역들에 굴진력량을 집중하게 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백m의 동방나무를 해결하여 1.4분기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모든 탄광들에서 지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난관을 뚫고 석탄생산량을 높이도록 경

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해나가고있다.

석탄생산의 앞장에 선 덕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교대가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려 매일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덕천탄광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탄밭을 넓히며 마련하는 한편 체탄에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능력을 높이고있다. 탄광의 청년경의 일군들은 경감장에 들어간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키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제남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의 열의가 높아지고 석탄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2개를 비롯하여 생산량이 많은 갱들에 나가 채굴조건과 막장설비가동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탄광에서는 석탄생산량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전방이 좋은 새 탄밭들을 마련하고있다.

형봉탄광, 월봉탄광을 비롯한 연합기업소안의 다른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석탄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리 혁 철

##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적극 원호 각지 일군들과 당원, 근로자들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랑 안고 인민군인들을 적극 원호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최근에 도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군인들이 혁명공대의 면모를 더 잘 갖추고 군사과업수행을 당의 도대로 하는데 필요한 많은 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특히 그들은 인민군인들의 군무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공장종업원들은 모두가 떨쳐나 성의를 다한 여러가지 원호물자들을 인민군

인들에게 보내주어 그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평안북도정보통신국에서도 인민군대를 물질방면으로 원호하는것을 국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인민군인들이 싸움준비를 더 잘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일들을 적극 찾아하고 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승호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최근에만 해도 인민군인들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멀지 않게 전투일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찾아하

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여러차례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그들은 장군님의 전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었다 하면서 인민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위해주어 군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그들은 여러가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인민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밖에도 전국의 많은 단위 일군들과 당원,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무장으로 받들고 선군의 내공을 철저히 지켜가는 인민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고있다.

본사기자

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여러차례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그들은 장군님의 전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었다 하면서 인민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위해주어 군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그들은 여러가지 원호물자들을 마련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인민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밖에도 전국의 많은 단위 일군들과 당원,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무장으로 받들고 선군의 내공을 철저히 지켜가는 인민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고있다.

본사기자

#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본래를 영원히 지켜나갈것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가 생명이고 생활이라면 사회주의의 생명은 사회주의본래에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본래를 고수하는것을 당의 운명,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역사의 온갖 풍파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억세게 전진하여왔다.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될수 있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전성기를 펼쳐 놓을수 있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본래를 끝까지 지켜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 사회주의본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처음부터 류테없이 복잡한 정세와 간고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어왔다. 외세에 의한 창조와 탄압과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방해책동,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 이러한 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왔다.

사회주의리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주로 두개 전선에서 벌어졌다. 한 전선은 제국주의침략과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고 다른 한 전선은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전반적으로 사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제국주의와의 투쟁이나 창조와 건설사업이나 할것없이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모든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우리의 투쟁경험은 사회주의본래가 생명이며 사회주의본래를 지키면 승리하고 버리면 죽음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사느냐 죽느냐, 다시 말하오 국가와 사회의 생활을 누리는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생활을 누리는가 아니면 남의 노예가 되어 천대와 멸시를 받느냐 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인간애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기치를 높이 든 사회주의는 그 리념에서 과학적이며 독창적이었음뿐아니라 실천에서도 변혁적이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할 숭고한 리념에 맞게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부문에 맞게 투쟁으로 시작하여 새롭게 건설하고 완성해나가기 하였다. 바로 이때로부터 사회주의라는 거창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사소한 험길에도 없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끝까지 밀고나가는 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혁명투쟁이 전진하는데 따라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지만이다. 예상치 않았던 시련과 난관도 있을수 있다. 이에 따라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 달라질수 있고 투쟁방법도 변할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철저히 걸지하여야 할 원칙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본래이다.

사회주의본래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여 자본주의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오직 사회주의만이 가치있는 본질적특성, 사회주의리념이 현실로 꽃피운 고유한 모습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수천년동안 내리온 모든 착취제도를 부정하고 탄압한 세형의 사회제도가이다. 자본주의는 봉건적신분예속을 자본의 예속으로 바꾼 착취제도이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혁명적방법으로 뒤엎어내고 역사수명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제도이다. 자본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고 탄압한 사회주의는 자기의 고유한 생리와 발전법칙에 따라 사회제도와 정치방식도 생활양식도 새롭게 건설해나가게 된다.

자본주의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이 라면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인것만큼 사회주의본래는 집단주의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그에 맞게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를 하나하나 마련해놓으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류가 오해 세월 넘허하던 리상사회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요구가 훌륭히 구현된 사회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구하며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이며 여기에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가 있다.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로부터 인민을 위한 시책들을 이르기까지 모든 전취물들은 우리 수령님의 성스러운 령도의 자유이 새겨져있으며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의 갈피갈피에도 수령님의 자애로운 어머니사랑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유산이며 수령님의 사랑과 령도의 결정체이다.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 로고를 다 바쳐가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창조자이다.

우리가 사회주의본래를 지킨다는것은 결국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와 집단주의적요소, 집단주의적생활양식을 지킨다는것이며 우리 인민의 피범이 깃들여있는 사회주의전취물들

수호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본래를 지키는것이 자 사회주의를 지키는것이며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길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를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주의는 창조적이고 변혁이며 진보이다. 원래 사회주의건설과정은 처음부터 개방이 아니라 혁명적인 방법으로 모든것을 새롭게 변혁해나가는 전진미담의 길이다. 사회주의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강하다고 할 때 그것은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되고 사회주의적생활관념이 확립됨으로써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새 사회의 골격이 형성되었다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제도의 수립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거창한 역사적사변으로 되지만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에서 볼 때 첫시작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갖 태어난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주의적성격을 가진 새 사회인 동시에 넓은 사회의 유물을 가지고있는 파도적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의 파도적성격을 극복하면서 사회주의본래를 적극 살려나가기 한다. 이렇게 될 때 사회주의는 자기의 고유한 모습을 가지게 되며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휘해나가게 된다.

사회주의본래는 사회주의의 존재방식이며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이다. 사회주의는 자기의 본래를 적극 살려나갈 때 끝바른 길을 따라 승승장구해나가지만 본래에 조응이라도 탈선하게 되면 목결과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된다. 지난날 이전 쓰르락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등장하였던 사회주의가 붕괴되게 된것은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지 못한때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방범을 끌어들이 사람들과에서 황금대중의 부르조이사상, 개인리기주의사상을 퍼뜨리고 《소유는 다양화》를 제창하면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통채로 파괴하였다. 결국에 가서 제국주의자들의 비위에 맞게 사회주의를 외면하고 그 우월성을 마비시켰으며 사회주의붕괴와 자본주의복귀의 길을 열어주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떤 물질이든지 다른 물질이 다량 들어지면 변하기 마련이다. 양적변화가 질적변화를 가져온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는 외적요소인도 작용하였지만 주로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지 못한 내부적요인에 의하여 좌절되게 되었다. 사회주의가 아무리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하여도 사회주의본래가 저절로 고수되는 절대적인 담보만 없다.

역사는 지난날 사건들의 기록이나 단순한 총화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을 사소한 편향이나 목결도 없이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교과서이다. 승리한 때의 승승적이어야 사회주의가 빛나고 쓰러진 역사의 교훈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사회주의가 승리의 한길을 걸을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옹호고수되어야 온 전력사는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사소한 드림이나 추호의 양보

##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를 고수하기 위한 위대한 령도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역사의 온갖 도전들을 짓부시며 승승장구하여나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세상사람들이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주의적공탄을 높이 쌓아올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본래가 굳건하고 그 생활력이 날이 갈수록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고 승리하여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당의 령도밑에서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고 독창적인 선군명도도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험한 첩령을 넘고넘으며 끊임없이 이어진 장군님의 전진시찰의 길은 한몸 내대고 사회주의수호전에 나서신 길이었다. 사나운 눈보라와 비바람을 헤치시며 자강도를 비롯한 나라의 지방방곡목을 현지지도하신 장군님의 수천만리의 땀겨산신강행군길은 이 땅에서 통성변역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애국헌신의 길이었다. 사회주의가 그 어떤 사소한 목결과 편향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의 거창한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고 공고발

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첫 시기에나 수십년세월이 지나간 오늘에나 할것없이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은 어느것이든 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것이여 인민대중의 자각적 열의와 투쟁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관철되어나가고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당과 국가의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인민우에 군림하는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변함없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사회주의를 목숨바쳐 옹호고수하고 있다.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는것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짓부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는 피어오른 투쟁의 전취물이다.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탄생한것이 사회주의이고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승리하며 전진하여온것이 사회주의이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생성인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총력투쟁을 집중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는것과 함께 내부와해전적으로 사회주의제도를 허물기 위한것이였다. 적들의 책동에 악랄해지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성대국건설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다.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짓부시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본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정치적으로 는 《다당제》와 《다원주의》를 받아들인다는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갈을 물리치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져나가기 한다. 경제적으로는 돈바니를 혼들면서 시장경제를 내러먹이려는 야욕의 울기미를 차단하고 우리 자립,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경제의 주체화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기 한다. 문화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황기로운 바람》을 불어넣려는 부르조이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우리의 생활양식, 우리의 민족적풍습을 옹호 살려나가기 한다. 사회주의본래는 강성대국건설에서 튼튼히 확고히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그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본래를 떠나서 사회주의에 대하여 말할수 없듯이 사회주의의본래의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을 떠나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부터의 한결같은 양보와 후퇴도 없이 사회주의본래를 견결히 지켜나갈 때 우리는 국적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이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성과적으로 일떠세울수 있다.

사회주의본래가 살아있는 곳에는 사회주의의 붉은 기치를 힘차게 휘날리게 되고 강성대국승리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기 마련이다.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열렬한 사랑을 받는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온갖 시련과 풍파를 헤쳐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더불어 그 숭고한 영광과 위용을 끊임없이 빛내어나갈것이다.

##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혁명과 건설에서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있다.

사회주의본래는 본질에 있어서 집단주의이며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위력으로 전진하며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의 근본방향이 집단주의인것만큼 집단주의를 어떻게 구현해나가는가 하는데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관계와 사회관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꾸준히 벌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투쟁하여왔다. 특히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출세 결합시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생산의욕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로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되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자기 가정이 나 자기 개인이 안락보다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미풍이 차려지고있다. 바쁜 농사철에는 온 나라가 농촌을 도와주고 회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고조전 투쟁마다에로 저마다 달려가며 애국의 땅방울을 바쳐나가는것이 우리 사회의 류다운 풍경이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짐으로 받들고도 건설하고 있는 사회주의본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는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 한번 변란적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자강도를 비롯한 온 나라 도처에는 사회주의본래가 살아있으며 그 생활력이 날이 갈수록 높이 발휘되었다. 공방들이 멎어서고 철차는 제대로 달리지 못하였지만 모든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가고 어린이들을 위한 풍우유차가 달려가고 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었다.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치료를 혜택이 변함없이 차려지고 인민을 위한 문화휴양기지들이 온 나라 도처에 수없이 일떠섰다.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꽃피려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있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은 앞으로도 자기 발전의 끝바른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다.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데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선군혁명의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며 우리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의 제일수호자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강한 혁명투병력에 의거하여야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고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 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로 군인대중을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였으며 당정치사업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 수령옹위, 제도사수, 인민보위의 제일군위력으로 위용 떨치고있다. 천산시련이 닥쳐온대도 끄떡하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 사회주의와 배치되는 온갖 현상들과 결렬히 투쟁하는 불패의 수호자,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에 다 맡아 해결하는 결사관철의 위력한 전투대우, 이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특질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이 자 신군의 위력, 인민군대의 위력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던 일촉한 시련의 시기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부대로서 인민군대이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 위훈을 떨친것도 다름아닌 인민군대이다. 이런 인민군대가 있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악랄하게 책동해도 우리 인민은 마음이 든든하고 배설있게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혁명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 튼튼히 준비된 사회는 사회주의본래가 억년 드물지 않는 바위처럼 굳건한 사회이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매우고 군대와 인민이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해나가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군민대단결을 가져왔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위대한 현실이 펼쳐지게 하였다. 인민군대를 사회주의수호의 기둥으로 내세우며 선군으로 사회주의본래를 수호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방식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것이다.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혁명과 건설에서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있다. 사회주의본래는 본질에 있어서 집단주의이며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위력으로 전진하며 발전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의 근본방향이 집단주의인것만큼 집단주의를 어떻게 구현해나가는가 하는데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관계와 사회관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꾸준히 벌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투쟁하여왔다. 특히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출세 결합시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생산의욕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로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되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적생활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자기 가정이 나 자기 개인이 안락보다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미풍이 차려지고있다. 바쁜 농사철에는 온 나라가 농촌을 도와주고 회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고조전 투쟁마다에로 저마다 달려가며 애국의 땅방울을 바쳐나가는것이 우리 사회의 류다운 풍경이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짐으로 받들고도 건설하고 있는 사회주의본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는 순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주의신경을 마련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본봉기를 창조한 미풍과 동봉의 농업근로자들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처럼 따스히 돌봐주고있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발휘되고있다.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속에서 서로 전경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하여 아글아글 애쓰는 만포의 미더운 봉사일군들도 있다.

집단의 힘에 의거하고 집단의 단결된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세기적전선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다. 김철과 성강의 대야금기자들이 우리의 원로와 영웅에 의거하여 우리 식의 체제경제방법안설의 승진교를 높이 울리며 기세등등히 전진하고있으며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 우리의 CNC기술이 세계

## 당외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를 끝까지 고수하자

사회주의와 우리 인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대지우에 굳건히 뿌리내려 있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의 한길에서 이룩된 자기의 위대한 전취물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사회주의본래를 공고발전시켜나갈 결사의 각오를 굳건히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 온다 하더라도 우리자신이 택하고 걸어야 하는 사회주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합니다.》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오늘 위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다음해에 우리는 어머니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할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민생활향상대군을 힘있게 다그쳐 강성대국의 높은 명마루를 앞당겨 점령하는것은 위대한 사명률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수령님께서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인민생활향상대군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과 존엄을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는데서 기본은 천만군민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키는데 있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며 사회주의본래를 지키는 결연한 수호자도 인민이다. 인민들의 신념이 확고하여야 사회주의본래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 우리 인민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 참된 삶과 행복을 누려왔다. 우리 사회에는 착취계급의 특권과 전횡도, 사형살상의 반목과 질서, 패륜덕덕과 악욕구심의 악폐를 낳는 사회제군도 찾아볼수 없다.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자본주의의 《몰적적연명》에 대하여 추호도 환상을 가져본적이 없으며 자기의 운명과 미래가 꽃피는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자면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목숨바쳐 지킬줄 아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사상의 번짐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중앙에는 사회주의를 통채로 말아먹기 한다. 우리는 악랄하게 감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우리 식 사회주의가 체일로 좋다든 철성의 신념을 가지고 적들과 단호히 맞서나가기 한다. 사회주의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인민의 순결한 마음을 흐리게 하고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무분별한 심리모략전과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저지파란 시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보루를 지켜선 혁명적인민이라는 사명감과 긍지감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한다.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지켜나가기 한다. 사회주의본래를 지키는데서 일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제도하에서는 일군들을 위해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이 있다. 당과 국가가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일군들의 본분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는데 있다. 일군들은 당의 준공로선을 관철하여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며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세도와 관료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길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귀중한 주체의 사회주의사상과 로선이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끈기있게 다져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그 무엇보다 바랄수 없는 소중한 아름다운 사회주의생활이 있다. 사회주의의 길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피와 땀으로 헤쳐온 사회주의의 길은 영웅만대의 행복과 번영이 담보되어있는 영광넘친 길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가야 할 이 길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물려서지 않을것이다.

우리 조국강산에 장엄하게 터져오른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본래를 살리고 그 발전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력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해나가기 한다.

최첨단을 돌파하고 생활공학에서 최첨단 성과들이 이룩되어 온 나라를 환희로 들끓게 하고있다. 새로운 천리마의 속도, 조선의 속도를 창조한 홍남의 로동계급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완강하게 돌진하여 《조선은 걸심하면 한다!》는 철의 신념을 실물로 온 세계에 보여주었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 하였지만 우리 당과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그 모든것이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참다운 사회주의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사회주의본래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사회주의본래를 계속자신의 온갖 반동선전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실현으로 뚜렷이 확증하였다.

경제문제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총발동하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 우리자체의 경제제도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기 한다. 행정경제사업에서의 정치화를 적극 구현하여 일관성만 큼, 번짐만큼을 공고발전시켜나갈 결사의 각오를 굳건히 다지고있다.

사회주의의 본래를 끝까지 고수하자

경제문제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총발동하고 우리 제도의 우월성, 우리자체의 경제제도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기 한다. 행정경제사업에서의 정치화를 적극 구현하여 일관성만 큼, 번짐만큼을 공고발전시켜나갈 결사의 각오를 굳건히 다지고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체질화한 보람찬 사회주의 생활을 다 걸철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천만가지 리상을 꽃피우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를 고수하고 활력을 넘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천진군을 드세치게 벌려나오도록 하여서나 인민소식물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하며 율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온갖 대고조전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차배지게 함으로써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승진로선을 틀어쥐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기 명예에 발붙이고 눈을 세계를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에서 최첨단을 돌파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본래를 지키는데서 일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제도하에서는 일군들을 위해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이 있다. 당과 국가가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일군들의 본분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는데 있다. 일군들은 당의 준공로선을 관철하여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며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세도와 관료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길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귀중한 주체의 사회주의사상과 로선이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끈기있게 다져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있으며 그 무엇보다 바랄수 없는 소중한 아름다운 사회주의생활이 있다. 사회주의의 길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피와 땀으로 헤쳐온 사회주의의 길은 영웅만대의 행복과 번영이 담보되어있는 영광넘친 길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가야 할 이 길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물려서지 않을것이다.

우리 조국강산에 장엄하게 터져오른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본래를 살리고 그 발전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력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해나가기 한다.

#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어로! 경공업발전을 다그쳐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자

##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된바람을 일으킨다

공동사업의 전후적업무를 받들고 대고조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식료일용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람들은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을 요구합니다.》

경공업장들을 찾았을 때마다 인민소비품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잘 만들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식료일용공업부문의 일군들은 각 도마다 내려가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생산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의 일군들이 질제고를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간 성의 일군들은 모든 제품들에 대한 규격을 검토하고 기술지도를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성에서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제품전시회를 조직하고 우수한

제품을 출품한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지난 4월 각 도중합식료공장에서 출품한 빵, 과자전시회는 식료공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각 도중합식료공장에서 생각해 만든 과자는 맛과 색깔, 모양이 특색있어 식료공업부문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일군들이 머리끝을 쓰고 달려붙으면 얼마든지 인민들속에서 인기를 끄는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지금 각 도들에서는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는 모범적인 단위들에 대한 보려주기사업이 실속있게 벌어지고있다. 성의 일군들은 기초식품, 각종 일용품 비롯한 제품들에 대한 평가를 과학기술적지표를 놓고 엄격히 진행한 기초우에서 우수한 단위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식료일용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 제품개발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성일군들의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일본세에 의하여

식료일용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질제고를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져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대중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이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기술관리에 힘을 기울이고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력을 잘 꾸리고 기술자들의 창의성 발성을 불러일으켜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가고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발표권을 자체로 개발하여 제품의 질을 훨씬 개선하였을뿐아니라 호미식기로 된 연속생산공정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방법을 마련해놓았다.

평양밀가루공공장과 평양 곡산공장에서 빵, 과자, 사탕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특색있는 식료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평양밀가루공공장에서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빵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

여 해당 부문 과학자들과의 연계밑에 기술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평양곡산 공장에서 과학기술력을 동원하여 드림프스를 비롯한 당파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기술적문제를 풀어내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주름방지크림, 햇빛방지크림, 알로에살결물 등을 비롯한 기능성화장품생산을 늘리고있다. 이와 함께 세수비누, 치약의 질도 더욱 높이고있다.

녀성들속에서 인기있는 《코스모스》머리핀을 더욱 질 좋게 만들기 위해 펼쳐나선 평양일용공업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고있다.

각 도지방공업공장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감을 하나하나 앞마고 공평열에 따라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로 강력한 기술력을 꾸리는데 큰 힘을 냈다. 일군들은 매 사람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공평열에 따라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로 강력한 기술력을 꾸리는데 큰 힘을 냈다. 일군들은 매 사람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공평열에 따라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로 강력한 기술력을 꾸리는데 큰 힘을 냈다.

가공품의 질을 종전보다 훨씬 높였다. 특히 공장에서는 산과일로 여러가지 음료를 특색있게 만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창성군의 일군들은 이 공장의 음료생산공정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제기하고 이 사업을 완강하게 밀어주어 밝은 생산전망을 열어가고있다.

원장, 간장의 질이 높아 주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회령기초식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기술지표를 엄격히 지키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총속에 각 도에 새로 일떠선 종합식료공장에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원료로 맛좋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생산하고있다. 정방산 종합식료공장에서 강병미로 과자, 단살기병을 특색있게 만들어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백송종합식료공장에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에서 당과류와 청량음료의 질을 높여 주민들이 즐겨찾는 제품으로 되게 하고있다.

식료일용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질 좋은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게 하는것입니다.》

강원도안의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원산에군인수지일용공업공장과 원산염에군인수지기공공공, 원산철광생산업동조합과 안원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경공업공장에서 4월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5월에도 인민소비품생산을 계속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저어올리고있다.

원산에군인수지일용공업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매달 맡겨진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공장에서는 기대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실효있는 수지일용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원산철광생산업동조합에서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갖가지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원산시의 안변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시, 군경공업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원산에군인수지기공공장과 원산염리병공, 원산철광생산업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안변군과 문천시, 고산군과 통천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 지방공업공장에서조차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1차소비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여러가지 질 좋은 편지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선교편지공장에서- 최충성 찍음

## 혁신적인 안목, 창조적인 일본새

### 합흥구두공장에서

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생산을 밀고나가고있다. 생각이 들었다.

우리와 만년 지배인은 공장의 기술력량이 그른다고 하면서 이제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를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공장에 과학기술열풍이 휘몰아치고 제품의 질이 플라보게 높아진것은 공장일군들의 혁신적인 안목과 대단한 전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 어느날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참모부에서는 혁명의 회를 가지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는 신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제품의 가치수와 질을 개선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같은 형태,

같은 색깔의 제품을 다량생산하여 계획수자나 맞추는데 만족하지 말고 좀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안목으로 신발의 형태와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여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자는 안을 내놓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중에서도 설비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벌어졌다. 일부 부속품들을 구입할거나 새로운 설비들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하지만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책임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있는 사람들에게 현존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 리용하며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힘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이 오늘 당이

요구하고있는 문제라는것을 깊이 인식시켜주었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의 연계밑에 설비개조를 맡아 수행할 강력한 기술력을 꾸리는데 큰 힘을 냈다.

일군들은 매 사람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공평열에 따라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로 강력한 기술력을 꾸리는데 큰 힘을 냈다.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창조안을 적극 지지해주고 현실에 도입하는 사업을 대담하게 조직하였다. 또한 일군들이 앞장에서 서서 해결되는 자체와 부속품들을 필요해주고 기술자들의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었다.

이렇게 되니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기 시작하였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어디서든 쉽게 얻을수 있는 우리의 자

## 누구나 즐겨 찾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펼쳐나갔다. 4. 15 기술혁신동맹대원들과 공무직업인의 기능공들은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며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새 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손색없이 제작하였다. 조합의 로동자들이 헌신의 땀을 바쳐 만들어진 제품들은 상점에 나오자마자 수요자들속에서 질이 좋고 쓰기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사기자

## 제남목장에서

이동방목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품소 찾아주시였던 축산2계 분장 일군들과 방목공들도 분조별 품관구역을 타고있어 영양가 높은 먹이를 골라가며 순환식으로 이동방목을 하고있다. 이와 함께 날씨조건을 잘 타산하여 방목을 조직함으로써 염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있다. 분장에서 이 젓과 젓가공제품을 따듬대로 먹을수 있게 하여 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목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염소마리수와 젓가공제품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잊을수 없는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생산도대를 그른듯 좇아온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셨던 축산2계 분장 종업원들이 맡은 일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분장의 방목공들은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염소의

## 업소젖생산을 늘인다

황해남도농경리위원회 제남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올해 새기엽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어미염소들에 대한 방목을 실속있게 하면서 젖생산을 늘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물을 먹고 빨리 자라는 염소들 젓가공제품을 따듬대로 먹을수 있게 하여 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목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염소마리수와 젓가공제품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잊을수 없는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생산도대를 그른듯 좇아온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셨던 축산2계 분장 종업원들이 맡은 일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분장의 방목공들은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염소의

특파기자 리승철

## 당의 축산정책을 빛나게 관철할 한 마음안고

### 새 기술을 받아들여 알곡먹이를 절약

#### 신의주닭공장에서

최신 신의주닭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새로운 대용먹이생산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축산물생산을 받아들여 한해에 수백의 알곡먹이를 절약할수 있게 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금업의) 경제적으로성을 어떻게 하면 높이겠는가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재 98 (2009)년 11월 신의주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기술을 혁신하여 혼한 틈밥이나 버거를 오리의 대용먹이로 리용함으로써 많은 알곡먹이를 절약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생산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한 이 닭공장과 기술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해주었다.

지배인 주명, 기사장 김근호 등 부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간직하고 더욱 분발하여 지난해에 종전보다 더 훌륭한 대용먹이생산기술을 연구개발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였다. 이들은 거듭되는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였다.

4. 15기술혁신동맹대에 당라린 최민, 조명학, 최준영, 김의정 등들과 국가공주보존 연구소 실장 박사 서태훈 등 부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창조적혜를 합쳐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

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이들은 1년 남짓한 기간에 새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혼한 틈밥과 버거, 장병이숙, 강병이숙과 같은것들을 섬유소분해균으로 분해하는 동시에 젓산균과 여러가지 효소를 배합하여 먹이 단위당 영양가치와 소화흡수율을 높였다.

공장에서 새로 연구개발한 대용먹이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알곡먹이소비를 20%까지 낮출수 있다는것을 실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에서 해마다 알곡먹이 소비액이나 절약할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대용먹이생산기술을 받아들인 결과 공장에서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할수 있게 되었다.

특파기자 송창운



인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닭사육공장에서 새 기술을 받아들여 알곡먹이를 절약하고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찍음



무사고주행에서 앞장서나가는 부부운전자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송산제도전차사업소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 완강한 실천가

### 신원군 수원협동농장 과수작업반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어깨를 들이치고 걸린 문제를 풀며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수가 되고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신원군 수원협동농장 과수작업반장 리만선동무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기수로, 능력이 있는 실천가로 농장원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심년 전 이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부림소를 잘 기르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농장에 부림내리던 40여년 전 그날부터 리만선동무는 부림소를 잘 기르며 대하여 주신 리만선동무는 이렇듯 말하곤 하였다. 《부림소를 많이 기르라는 것은 우리 농장에 주신 아버지가 수령님의 유훈이요,

협동농장 과수작업반장 리만선동무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당부 안고 수십년동안 해오던 부림소관리를 증중에서 그만두는 건 말도 되지 않소.》

그는 부림소를 자기 살보이처럼 여기며 하루일과를 부림소관리로부터 시작하곤 하였다. 예로부터 남편은 많았지만 그는 충아지를 받아내고 그 영양관리를 잘하면서 부림소관리공들들과의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마침내 10년동안에 작업반의 부림소마리수를 5배로 불구었다. 리만선동무는 자기 가 기르는 부림소의 영양관리를 품을 들여 잘하여 해마다 농장이나 군적인 소품평회마다 순위에 들곤 하였다.

이날에 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게 되었고 올해는 2주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3월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었다.

조현철



# 역적패당의 극악한 북남대결소동은 천추를 두고 용서받지 못할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 (3)

최근 리명박역도는 공개석상에서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북의 사과》가 없다는 북남사이에서 그 어떤 대화도 있을수 없으며 판계가 개선될수 없다는 망발을 꺼리검이 늘어놓았다.

이번 베를린행각때에도 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주제넘은 악담질을 하였다.

청와대와 피피통일부, 외교부상부의 수급총개들도 이에 맞장구치며 두 사건에 대한 《핵인정》과 《사과》를 받아내려는것은 《부동의 원칙》이며 《이 문리를 뛰어넘는》 대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있을수 없다고 떠벌이고있다.

피괴국방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사건의 《도발원전》과 지원세력에 대한 그 무슨 《단호한 용서》를 서슴없이 내뱉고있다.

뿐 아니라 《주모제》니, 《제막식》이니, 《기증식》이니 하는 광대극들이 벌여지고있는가 하면 두동강난 《천안》도 《참판》 놀음이

진행되는 등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증성과 대결분위기교구가 극도에 이르르고있다.

여기에 남조선내부에서 편이 어산생되고있는 각종 사건들까지 우리와 연계시킨 제3, 제4의 <천안> 호사건들이 날조되어 북남판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적위기로 몰아가고있다.

현 사태는 역적패당이야말로 북남관계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지독한 악질대결분자, 추악한 사대매국노, 악명높은 특종추진망루리라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이미 두차례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하여 특대형모략국 《천안》 호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연평도포격전의 흑막을 날발이 받아놓은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은 역적패당이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져 제3, 제4의 남조극을 꾸며내고있는 조건에서 그 불순한 기도를 세상에 다시금 까밝히게 된다.

고백해야 할것이다.

넷째, 어피추진체의 출처에 대한 의혹은 남조선사회에서 더욱더 커지고있다.

어피추진체도 《천안》 호침몰사건에 대한 《북판련설》의 결정적 증거로 되고있다.

국소형파편까지 식별해내는 첨단 탐지수단으로 장비된 수십척의 함선들이 50여일동안 찾아내지 못한것이 어디선가 문득 나타난 민간어선이고그물로 건져낸 어피추진체는 한마디로 《의혹충잡체》이다.

어피폭발의 결과물이라는 백색흙찰물질은 폭발과 전혀 관계없는 부식되어 의한 결정질알루미늄이음으로 판명되고 어피추진체를 《북의것》으로 립증하기 위해 어피설계도가 지 여러차례 바뀌어대다가 폭로된것도 그러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단언 역적패당이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져 제3, 제4의 남조극을 꾸며내고있는 조건에서 그 불순한 기도를 세상에 다시금 까밝히게 된다.

역적패당의 대외거부처세가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조미군부장평교섭담을 개최하여 《천안》 사건을 다루기로 하였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기간 7차에 걸쳐 진행된 판문점 조미군부대차급실무접촉에서 미군측이 보여준 자세는 너무나도 편견적이고 불순하였다.

미군측은 앞에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과 문제해결방도에 관심이 있는것처럼 꾸며보이면서도 뒤에서는 문제해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시간을 끌었는가 하면 이 사건을 국제화하여 《북의 어피공격설》을 합리화해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다가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받아들이기 바쁘다던 《북판련설》을 확증하는데 리용된 증거들을 판문점에 가지고와야 공동조사하는 우리의 최종적인 요구를 더는 회피할수 없게 되자 판내 접촉을 결렬시켰다.

결국 우리측이 내놓은 국방위원회검열단과관계에도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도 판문점 조미군부장평교섭담제안도 다 실현될수 없었다.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사람들은 《천안》 호사건의 진상을 공명정대하게 밝힐것을 요구하고있는 반면에 동족대결과 총돌을 지속시키려는 불순세력들은 그 진상해명을 가로막는데 급급해하고있다는것을 확정해두어야 한다.

### 3. 새로 꾸며낸 제 3의 남조극

동족대결분자들은 폐의없이 모략 남조의 능수들이다.

그들에게는 대결을 합리화하고 조장확대하기 위한 구실이 끝없이 필요할것이다.

청외대립정권을 따내기 바쁘게 북남판계를 계단식으로 악화시켜온 역적패당이 《천안》 호침몰사건을 조작하여 전면적인 동족대결에 총돌입한 후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제2의 《천안》 호사건인 연평도포격담을 감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불과 불이 오가는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전변시켰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천안》 호사건발생후 400여일은 대결과 전쟁을 막고 대화와 호사건의 진상을 공명정대하게 밝힐것을 요구하고있는 반면에 동족대결과 총돌을 지속시키려는 불순세력들은 그 진상해명을 가로막는데 급급해하고있다는것을 확정해두어야 한다.

위한 새로운 합의를 편이 이루어낸것이 다름아닌 6.15시대 북과 남의 참모습이었다.

북남관계발전사는 이렇듯 그 누구의 《사과》나 부당한 경제조건의 아니라 민족의 통일을 위해의 경상이는 뒤로 미루고 아량과 선의를 보이며 화해와 단합을 위한 나날로 이어졌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공리공영과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온 수많은 애국애족인들을 기억하고 내세우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반대로 북남대결사에는 반목과 질시, 적대와 총돌을 조장시키기 위해 없는것도 날조해내고 부당한것도 정당한것도 둔갑시키고 그 책임을 대방에게 전가시키는 등 민족의 지향에 역행해온 역적들도 적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모략적 정체가 드러난 학인권첩단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등의 모략극들을 꾸며내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면서 동족대결에 기승을 부린 악명높은 역대 피괴통치체들의 죄악은 온 겨레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단합열풍이 일 때마다 조정을 차단하기 위해 조작화한 모략극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겪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단합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있는 우리 겨레는 이에 도전하여 분열과 전쟁을 추기한 사대매국노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죄행을 두고두고 질산해오고있다.

우리 민족의 리익을 해친 범죄에는 시효가 있을수 없다.

제 하나와 이름을 부지하기 위해 외세에 추종하고 동족대결을 고위하던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으며 황천객이 된 후에도 민족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했다것은 더 말할것이 없으니 필경이다.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농협》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를 비롯한 모략극들을 날조하여 우리와 연계시키는것은 곧 북남대결을 추추려는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은 역적패당이 《천안》 호사건을 우리와 끝판대결결사기서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아보고자 악을 쓰느니없는것만큼 그 진상해명을 위한 노력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이 밝은 세상에 폭백을 전도해 보려는것보다 이리서치는 없다.

지출한 모략극날조에도 계속 매달리면서 동족대결에 광분하는것은 제 무덤을 파는 길이다.

역적패당이 는 거제앞에 용서를 받고 살길을 찾는 최신의 망도는 오직 하나 지금이후도 모략극, 남조극의 진상을 밝히고 민족에게 저 지는 죄행에 대하여 솔직히 반성하는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는 관대하였으며 파기를 불문하고 도망치는 자를 대수없이 죽였다.

다시금 천명하건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사회주의체제를 감히 우롱하고 모독하는자들과는 그 누구든 절대로 상충하지 않는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립이다.

반만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반공화국대결정전에 매달리던 역적패당은 민족사에 특대형모략극날조의 원흉으로, 현하에 들도 없는 악질대결분자, 통일의 해방군으로 락인되어 천추만대를 두고 저주와 규판을 받게 될것이다.

지금처럼 살아내는 경우 역적패당의 집권말기는 더욱 치참해결것이며 청와대를 떠나서는 죽시 못된다만 일삼던 선입자들의 전철을 밟아 백담사나 갑종들을 가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명백한것은 리명박역도같은자는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곳이 없다는것이다.

역도는 제 나라 땅에서 버림받고 쫓겨나 이국에서 들쳐먹기 방황하다가 객사한 리승만역적의 가련한 신세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라 한다.

미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고 동족대결분자에게는 준엄한 징벌의 철구가 내리치기마련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내외원수를의 발악적인 압살책동에 정정당당하게 맞설것이며 민족적화해와 단상사자가 발생하였지만 오상 책임을 따지고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것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것이다.

주제 100 (2011)년 5월 14일 평 양

### 1. 《북판련설》이 확인 하여 준

《천안》 호사건이 동족대결을 노린 특대형모략극이라는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아직까지 《북판련설》을 내내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북남관계전도는 더욱더 암담해지고있다.

모략극의 진상을 해명하는것은 곧 역적패당의 대결본색을 폭로하는것으로 된다.

피괴들이 주장하는 《북판련설》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는 부지기수이다.

그중에도 가장 믿을직할것은 역적패당이 들고나왔던 물질적증거물이다.

첫째, 《북 어피조각》이라고 한 알루미니움합금조각 그자체가 남조이고 모략임을 증명해주고있다.

피괴조사단이 발표한 《북판련설》의 핵심증거중의 하나가 《천안》 호가 침몰된 백령도수역에서 건져냈다는 알루미니움합금조각이다.

피괴들은 지금까지 알루미니움합금으로 되어있는 그 어피조각이 《북의것》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위원회검열단은 서울이나 판문점에 나가 우리의 진짜어피조각을 보여주면서 남조극, 모략극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 어피조각》의 진실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어피는 알루미니움합금이 아닌 다른 재질로 되어있다.

알루미니움합금의 리용분야는 다양하며 침몰된 함선의 건조에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도 군수공업부문에 널리 리용하고있다고 한다.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고있는 우리 군수공업부문에 있는 우리 나라에 흔한 재료로 만든 합금으로 어피를 제작하고있다. 우리를 조공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를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결국 허튼것을 가지고 《북판련설》을 증명하자고 하니 궤변밖에 나올수 없었던것이다.

우리는 《천안》 호침몰사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밝힐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를 절고드느자음에게도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알루미니움합금이 아닌 우리 어피의 합금편을 넘겨줄 용의가 있다.

역적패당은 알루미니움합금조각을 《북 어피의것》이라고 우겨대면 펠스루 스스로 《북 어피공격설》을 부정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C자형침투경로설》의 허황성은 남조극의 정체를 더욱 뚜렷이 해주고있다.

피괴조사단은 《천안》 호사건에 대한 《북판련설》의 증거로 우리 잠수정의 《C자형침투경로》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사건발생 2-3일전에 우리의 일부 소형잠수정들과 그를 지원하는 모선이 기지를 리탈하였다가 복귀한것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괴국들은 저들이 조작하여 장악하고있는 우리 잠수정의 출발시간과 항로거리, 백령도수역에로의 진입시간, 복귀한 항로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미 피괴들은 《이》미련함정보에 의하여 저들이 해상도 1m이하의 정밀영상자료까지 다 장악하고있기때문에 그 어떤 잠수함도 능히 식별할수 있다고 굳어혀왔다.

피괴조사단이 불리한 날씨로 인한 《판측불가능》으로 영상자료를 불명하여 공개할수 없었다면 최소한 《C자형침투경로》를 탐지한 군사

### 남조극임을 스스로 물질적증거를

정보자료라도 내놓아야 할것이다.

아마 《C자형침투경로》와 《2-3일전》이라는 시간개념을 놓고 분석하면 우리 잠수정의 그 무슨 《침투경로》라는것이 얼마나 허황한 남조인가를 누구나 다 알게 될것이다.

셋째, 《1번》 글제는 그자체가 조작이다.

어피추진체에 씌여진 《1번》 글제도 《천안》 호사건에 대한 《북판련설》의 결정적증거의 하나였다.

고당 과학자들이 여러차례의 고정밀분석을 통하여 마지크로본 《1번》 글제가 폭발시 발생하는 고열에도 타없어지지 않았으며, 침몰된 배에서 다른 잔해는 바다물의 염도에 의해 부식되었으나 《1번》 글자부위만 생생한것, 고열에 견딜수 있는 외부철갑은 타러지고 저열에도 타는 잉크는 남아있는것, 《1번》 글자를 쓴 잉크가 남조선에서 널리 사용되는것 등을 공식 확증한것으로 《1번》이라고 쓰여있는 우리의 통상적인 표기방식이 아니라는데 대해서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수공업부문에 생산된 부속품이나 기체에 아직까지 마지크로 글자를 써넣는것처럼 손조종을 하고있다고 보았는것은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이다.

그가 누구든 최첨단도편에서 힘있게 벌여지고있는 우리 나라 군수공업부문의 발전수준에 대해 초보적인 상식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낮뜨른을 것들을 꾸며내지 못할것이다.

《1번》 글제가 있기때문에 《북의 어피》가 분명하다고 우겨대는 것은 《대리가 들이면 다 사람》이라고 고집한 고대철학자의 궤변을 연상케 하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지렬한 수법에 불과하다.

과학적인공과 무식으로 더 큰 망신을 당하지 않았는지 다시는 《1번》 글제를 거론하지 말자는 아니던 그 조작경위에 대해 솔직히

### 4 0 0 여일

생방함의서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되고있다.

피괴들이 사건을 진정으로 해명하려는 의도가 될까만파이라도 있었지만, 또 저들이 침몰된 남조조각이 없었다면 우리의 제의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었을것이다.

《대리 피괴들은 이 사건조사에 대한전문가가 참가하였다.》니, 《공정성이 보장되었다.》니 하는 허위적인 주장만 내세우며 우리 검열단의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인공화국전면대결에 진입하였다.

우리는 《천안》 호사건을 명백히 해결할 의지말에 지난해 6월에만도 여러차례나 남측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할 용의가 있었다면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했던 이어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여기에는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하여 로해조사의한 결과와 가지고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혀려던 종래의 계획이 피괴들의 거부책동으로 실현되지 못한 조건에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열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진정이 담겨져있었다. 다시말하여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하자라는것이였다.

역적패당은 북남고위급군사회담 개최도 무작정 거부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유언인전보장리사회에까지 끌고가 국제화해보려고 분별없이 늘어났다.

세계의 면전에서 망신만 똑똑히 당한 피괴들은 저지른 죄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제2의 《천안》 호사건도 도발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것이 바로 지난해 연평도포격담이었다.

실제 우리 군대의 거들되는 경교에도 불구하고 피괴호전광들은 2010년 11월 22일 조선서 해 우리측 수역에 대한 포사격계획을 꺼리검이 공포하였다.

다음날 아침 8시 우리 군대는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단 한발의 총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 대대적 리포격대응조치가 취되도록 대대적 전적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는것을 최종 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피괴군부조장정들을 내세워 끝판대결을 노리고 선봉질을 해왔으며 결국 포사격의 발원지인 연평도는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면치 못했다.

북남판계를 《천안》 호사건에 따른 동족대결로부터 연평도포격담을 계기로 불과 불이 오가는 최악의 상태로 직면하였다.

이는 세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에서의 즉시적인 대화를 요구해나섰다.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무리하고 뻔뻔한척이 없었던 피괴들은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비핵화문제를 《대북대화체계의 3대주요》으로 내대면서 대화흐름에 역행해나섰다.

《3대주요》이라는것이 곧 대화의 대를 노린 고의적인 계획이었지만 우리 군대는 북남판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측에 군사적성적의 모든 현안문제들을 북남고위급군사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서한을 보냈다.

이것마저 거절하면 평화교란자, 대외거부처로서의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게되어 두러워 피괴들은 별수없이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회담장에서 나오면 피괴피괴들의 추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것이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로 제기한데 대해 피괴패당은 《천안》 호침몰사건의 현지조사를 위한 《인공화국전면대결에 진입하였다.》

우리는 《천안》 호사건을 명백히 해결할 의지말에 지난해 6월에만도 여러차례나 남측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할 용의가 있었다면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했던 이어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여기에는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하여 로해조사의한 결과와 가지고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혀려던 종래의 계획이 피괴들의 거부책동으로 실현되지 못한 조건에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열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진정이 담겨져있었다. 다시말하여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하자라는것이였다.

역적패당은 북남고위급군사회담 개최도 무작정 거부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유언인전보장리사회에까지 끌고가 국제화해보려고 분별없이 늘어났다.

실현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 제 3의 날조극

《천안》 호사건발생은 미국의 남조선영구감정명분을 마련하여 전신적전통전환을 연기하기 위한 파국적인 《안보불안》조성이 절실한것과 때를 같이하였다.

그 수법도 모략극의 정체를 영연히 흑막속에 덮어버리기 위해 사건 해명에 불리한 장소와 시간 즉 공해가 아닌 평해에서, 수상이 아닌 수중에서, 한낮이 아닌 밤중에 사건을 날조하였다.

그 제목도 바쳐진것은 46명의 무고한 사병들의 목숨이었다.

이번 《농협》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의 《북의 소행설》은 안으로 는 지난 4. 27 보충선거에서 반인민적악정을 단죄하는 민심의 분노에 의해 참패를 당한 책임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조선기싸움에 벌여지고 나라는 조선반도주변국들의 대화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술책이 모색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였다.

《북의 소행설》의 제목도 《농협》 금융업계가 선택된것도 집권기간 초래된 민생파탄, 빈부격차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보려는 역도특유의 간교한 기도와 판명된다.

《농협》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는 한마디로 《천안》 호사건의 재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이번 사건을 동족대결을 위한 새로운 제3의 남조극으로 요인하며 야유와 조소, 비난과 규판을 퍼붓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이번에 커다란 피해를 당한 《농협》 당사자들은 《북의 소행》이라고 밀물아붙인 피괴당국의 발표가 과학성이 없는 《서부른 결론》이라고 함평해나서고 피괴군기무사태가 저 벌어진 사태를 《북군부의 공작》으로 밀어붙일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고있다.

특히 민간에서는 지난해 《천안》 호를 침몰시켰다는 어피추진체에 《1번》이라는 글자가 씌여져있어 《북판련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공격에 동원된 인터넷주소에는 《1》이 몇개나 더 붙여있는가고 쓴웃음을 보이고있다.

오죽하면 해당 전문가들이 원래 5차원공간을 리용하여 주로 자기를 로출시키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나온 특수한 형태의 교전방식인 싸이버전에 대한 초보적인 개념도 없었더니 피괴수사팀이 황당무계한 근거와 주장으로 《북의 소행》을 립증시키려 했다고 판단하고있었다.

제 제안에서까지 새로운 의혹의 대상으로 된 《북의 소행설》을 내밀고 현재 피괴들은 제책식전쟁을 통가하는 싸이버테로에 대비한다는 《다각적대응체계구축》의 미명하에 피괴국방부에 싸이버사법부를 발족시킨다 어쩐다 하며 북남소동을 피우고있다.

제반 사실은 《천안》 호사건을 비롯한 역적패당이 《북판련설》을 계속 내뉘리며 북남대결 정세를 광분하고있는 한 앞으로 제 4, 제 5의 반공화국모략극이 계속 날조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농협》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의 《북의 소행설》은 모략이 만천하에 폭로되어 거덜이 날대로 지난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남조극이다.

이 사건은 분야가 다름뿐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천안》 호사건의 일맥상통하다고 말할수 있다.

### 제 3의 날조극

《천안》 호사건발생후 400여일은 대결과 전쟁을 막고 대화와 호사건의 진상을 공명정대하게 밝힐것을 요구하고있는 반면에 동족대결과 총돌을 지속시키려는 불순세력들은 그 진상해명을 가로막는데 급급해하고있다는것을 확정해두어야 한다.

위한 새로운 합의를 편이 이루어낸것이 다름아닌 6.15시대 북과 남의 참모습이었다.

북남관계발전사는 이렇듯 그 누구의 《사과》나 부당한 경제조건의 아니라 민족의 통일을 위해의 경상이는 뒤로 미루고 아량과 선의를 보이며 화해와 단합을 위한 나날로 이어졌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공리공영과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온 수많은 애국애족인들을 기억하고 내세우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반대로 북남대결사에는 반목과 질시, 적대와 총돌을 조장시키기 위해 없는것도 날조해내고 부당한것도 정당한것도 둔갑시키고 그 책임을 대방에게 전가시키는 등 민족의 지향에 역행해온 역적들도 적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모략적 정체가 드러난 학인권첩단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등의 모략극들을 꾸며내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면서 동족대결에 기승을 부린 악명높은 역대 피괴통치체들의 죄악은 온 겨레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단합열풍이 일 때마다 조정을 차단하기 위해 조작화한 모략극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겪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단합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있는 우리 겨레는 이에 도전하여 분열과 전쟁을 추기한 사대매국노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죄행을 두고두고 질산해오고있다.

우리 민족의 리익을 해친 범죄에는 시효가 있을수 없다.

제 하나와 이름을 부지하기 위해 외세에 추종하고 동족대결을 고위하던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으며 황천객이 된 후에도 민족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했다것은 더 말할것이 없으니 필경이다.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농협》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를 비롯한 모략극들을 날조하여 우리와 연계시키는것은 곧 북남대결을 추추려는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은 역적패당이 《천안》 호사건을 우리와 끝판대결결사기서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아보고자 악을 쓰느니없는것만큼 그 진상해명을 위한 노력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이 밝은 세상에 폭백을 전도해 보려는것보다 이리서치는 없다.

지출한 모략극날조에도 계속 매달리면서 동족대결에 광분하는것은 제 무덤을 파는 길이다.

역적패당이 는 거제앞에 용서를 받고 살길을 찾는 최신의 망도는 오직 하나 지금이후도 모략극, 남조극의 진상을 밝히고 민족에게 저 지는 죄행에 대하여 솔직히 반성하는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는 관대하였으며 파기를 불문하고 도망치는 자를 대수없이 죽였다.

다시금 천명하건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사회주의체제를 감히 우롱하고 모독하는자들과는 그 누구든 절대로 상충하지 않는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립이다.

반만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반공화국대결정전에 매달리던 역적패당은 민족사에 특대형모략극날조의 원흉으로, 현하에 들도 없는 악질대결분자, 통일의 해방군으로 락인되어 천추만대를 두고 저주와 규판을 받게 될것이다.

지금처럼 살아내는 경우 역적패당의 집권말기는 더욱 치참해결것이며 청와대를 떠나서는 죽시 못된다만 일삼던 선입자들의 전철을 밟아 백담사나 갑종들을 가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명백한것은 리명박역도같은자는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곳이 없다는것이다.

역도는 제 나라 땅에서 버림받고 쫓겨나 이국에서 들쳐먹기 방황하다가 객사한 리승만역적의 가련한 신세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라 한다.

미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고 동족대결분자에게는 준엄한 징벌의 철구가 내리치기마련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내외원수를의 발악적인 압살책동에 정정당당하게 맞설것이며 민족적화해와 단상사자가 발생하였지만 오상 책임을 따지고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것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것이다.

주제 100 (2011)년 5월 14일 평 양

### 《북판련설》이 확인 하여 준

《천안》 호사건이 동족대결을 노린 특대형모략극이라는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아직까지 《북판련설》을 내내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북남관계전도는 더욱더 암담해지고있다.

모략극의 진상을 해명하는것은 곧 역적패당의 대결본색을 폭로하는것으로 된다.

피괴들이 주장하는 《북판련설》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는 부지기수이다.

그중에도 가장 믿을직할것은 역적패당이 들고나왔던 물질적증거물이다.

첫째, 《북 어피조각》이라고 한 알루미니움합금조각 그자체가 남조이고 모략임을 증명해주고있다.

피괴조사단이 발표한 《북판련설》의 핵심증거중의 하나가 《천안》 호가 침몰된 백령도수역에서 건져냈다는 알루미니움합금조각이다.

피괴들은 지금까지 알루미니움합금으로 되어있는 그 어피조각이 《북의것》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위원회검열단은 서울이나 판문점에 나가 우리의 진짜어피조각을 보여주면서 남조극, 모략극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 어피조각》의 진실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어피는 알루미니움합금이 아닌 다른 재질로 되어있다.

알루미니움합금의 리용분야는 다양하며 침몰된 함선의 건조에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도 군수공업부문에 널리 리용하고있다고 한다.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고있는 우리 군수공업부문에 있는 우리 나라에 흔한 재료로 만든 합금으로 어피를 제작하고있다. 우리를 조공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를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결국 허튼것을 가지고 《북판련설》을 증명하자고 하니 궤변밖에 나올수 없었던것이다.

우리는 《천안》 호침몰사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밝힐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를 절고드느자음에게도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알루미니움합금이 아닌 우리 어피의 합금편을 넘겨줄 용의가 있다.

역적패당은 알루미니움합금조각을 《북 어피의것》이라고 우겨대면 펠스루 스스로 《북 어피공격설》을 부정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C자형침투경로설》의 허황성은 남조극의 정체를 더욱 뚜렷이 해주고있다.

피괴조사단은 《천안》 호사건에 대한 《북판련설》의 증거로 우리 잠수정의 《C자형침투경로》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사건발생 2-3일전에 우리의 일부 소형잠수정들과 그를 지원하는 모선이 기지를 리탈하였다가 복귀한것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괴국들은 저들이 조작하여 장악하고있는 우리 잠수정의 출발시간과 항로거리, 백령도수역에로의 진입시간, 복귀한 항로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미 피괴들은 《이》미련함정보에 의하여 저들이 해상도 1m이하의 정밀영상자료까지 다 장악하고있기때문에 그 어떤 잠수함도 능히 식별할수 있다고 굳어혀왔다.

피괴조사단이 불리한 날씨로 인한 《판측불가능》으로 영상자료를 불명하여 공개할수 없었다면 최소한 《C자형침투경로》를 탐지한 군사

### 남조극임을 스스로 물질적증거를

정보자료라도 내놓아야 할것이다.

아마 《C자형침투경로》와 《2-3일전》이라는 시간개념을 놓고 분석하면 우리 잠수정의 그 무슨 《침투경로》라는것이 얼마나 허황한 남조인가를 누구나 다 알게 될것이다.

셋째, 《1번》 글제는 그자체가 조작이다.

어피추진체에 씌여진 《1번》 글제도 《천안》 호사건에 대한 《북판련설》의 결정적증거의 하나였다.

고당 과학자들이 여러차례의 고정밀분석을 통하여 마지크로본 《1번》 글제가 폭발시 발생하는 고열에도 타없어지지 않았으며, 침몰된 배에서 다른 잔해는 바다물의 염도에 의해 부식되었으나 《1번》 글자부위만 생생한것, 고열에 견딜수 있는 외부철갑은 타러지고 저열에도 타는 잉크는 남아있는것, 《1번》 글자를 쓴 잉크가 남조선에서 사용되는것 등을 공식 확증한것으로 《1번》이라고 쓰여있는 우리의 통상적인 표기방식이 아니라는데 대해서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수공업부문에 생산된 부속품이나 기체에 아직까지 마지크로 글자를 써넣는것처럼 손조종을 하고있다고 보았는것은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이다.

그가 누구든 최첨단도편에서 힘있게 벌여지고있는 우리 나라 군수공업부문의 발전수준에 대해 초보적인 상식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낮뜨른을 것들을 꾸며내지 못할것이다.

《1번》 글제가 있기때문에 《북의 어피》가 분명하다고 우겨대는 것은 《대리가 들이면 다 사람》이라고 고집한 고대철학자의 궤변을 연상케 하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지렬한 수법에 불과하다.

과학적인공과 무식으로 더 큰 망신을 당하지 않았는지 다시는 《1번》 글제를 거론하지 말자는 아니던 그 조작경위에 대해 솔직히

### 4 0 0 여일

생방함의서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되고있다.

피괴들이 사건을 진정으로 해명하려는 의도가 될까만파이라도 있었지만, 또 저들이 침몰된 남조조각이 없었다면 우리의 제의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었을것이다.

《대리 피괴들은 이 사건조사에 대한전문가가 참가하였다.》니, 《공정성이 보장되었다.》니 하는 허위적인 주장만 내세우며 우리 검열단의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인공화국전면대결에 진입하였다.

우리는 《천안》 호사건을 명백히 해결할 의지말에 지난해 6월에만도 여러차례나 남측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할 용의가 있었다면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했던 이어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여기에는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하여 로해조사의한 결과와 가지고 합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밝혀려던 종래의 계획이 피괴들의 거부책동으로 실현되지 못한 조건에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열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진정이 담겨져있었다. 다시말하여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하자라는것이였다.

역적패당은 북남고위급군사회담 개최도 무작정 거부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유언인전보장리사회에까지 끌고가 국제화해보려고 분별없이 늘어났다.

### 제 3의 날조극

《천안》 호사건발생은 미국의 남조선영구감정명분을 마련하여 전신적전통전환을 연기하기 위한 파국적인 《안보불안》조성이 절실한것과 때를 같이하였다.

그 수법도 모략극의 정체를 영연히 흑막속에 덮어버리기 위해 사건 해명에 불리한 장소와 시간 즉 공해가 아닌 평해에서, 수상이 아닌 수중에서, 한낮이 아닌 밤중에 사건을 날조하였다.

그 제목도 바쳐진것은 46명의 무고한 사병들의 목숨이었다.

이번 《농협》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의 《북의 소행설》은 안으로 는 지난 4. 27 보충선거에서 반인민적악정을 단죄하는 민심의 분노에 의해 참패를 당한 책임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조선기싸움에 벌여지고 나라는 조선반도주변국들의 대화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술책이 모색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였다.

《북의 소행설》의 제목도 《농협》 금융업계가 선택된것도 집권기간 초래된 민생파탄, 빈부격차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보려는 역도특유의 간교한 기도와 판명된다.

《농협》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는 한마디로 《천안》 호사건의 재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이번 사건을 동족대결을 위한 새로운 제3의 남조극으로 요인하며 야유와 조소, 비난과 규판을 퍼붓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이번에 커다란 피해를 당한 《농협》 당사자들은 《북의 소행》이라고 밀물아붙인 피괴당국의 발표가 과학성이 없는 《서부른 결론》이라고 함평해나서고 피괴군기무사태가 저 벌어진 사태를 《북군부의 공작》으로 밀어붙일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고있다.

특히 민간에서는 지난해 《천안》 호를 침몰시켰다는 어피추진체에 《1번》이라는 글자가 씌여져있어 《북판련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공격에 동원된 인터넷주소에는 《1》이 몇개나 더 붙여있는가고 쓴웃음을 보이고있다.

오죽하면 해당 전문가들이 원래 5차원공간을 리용하여 주로 자기를 로출시키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나온 특수한 형태의 교전방식인 싸이버전에 대한 초보적인 개념도 없었더니 피괴수사팀이 황당무계한 근거와 주장으로 《북의 소행》을 립증시키려 했다고 판단하고있었다.

제 제안에서까지 새로운 의혹의 대상으로 된 《북의 소행설》을 내밀고 현재 피괴들은 제책식전쟁을 통가하는 싸이버테로에 대비한다는 《다각적대응체계구축》의 미명하에 피괴국방부에 싸이버사법부를 발족시킨다 어쩐다 하며 북남소동을 피우고있다.

제반 사실은 《천안》 호사건을 비롯한 역적패당이 《북판련설》을 계속 내뉘리며 북남대결 정세를 광분하고있는 한 앞으로 제 4, 제 5의 반공화국모략극이 계속 날조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농협》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의 《북의 소행설》은 모략이 만천하에 폭로되어 거덜이 날대로 지난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남조극이다.

이 사건은 분야가 다름뿐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천안》 호사건의 일맥상통하다고 말할수 있다.

### 제 3의 날조극

《천안》 호사건발생은 미국의 남조선영구감정명분을 마련하여 전신적전통전환을 연기하기 위한 파국적인 《안보불안》조성이 절실한것과 때를 같이하였다.

그 수법도 모략극의 정체를 영연히 흑막속에 덮어버리기 위해 사건 해명에 불리한 장소와 시간 즉 공해가 아닌 평해에서, 수상이 아닌 수중에서, 한낮이 아닌 밤중에 사건을 날조하였다.

그 제목도 바쳐진것은 46명의 무고한 사병들의 목숨이었다.

이번 《농협》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의 《북의 소행설》은 안으로 는 지난 4. 27 보충선거에서 반인민적악정을 단죄하는 민심의 분노에 의해 참패를 당한 책임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조선기싸움에 벌여지고 나라는 조선반도주변국들의 대화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술책이 모색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였다.

《북의 소행설》의 제목도 《농협》 금융업계가 선택된것도 집권기간 초래된 민생파탄, 빈부격차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보려는 역도특유의 간교한 기도와 판명된다.

《농협》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는 한마디로 《천안》 호사건의 재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이번 사건을 동족대결을 위한 새로운 제3의 남조극으로 요인하며 야유와 조소, 비난과 규판을 퍼붓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이번에 커다란 피해를 당한 《농협》 당사자들은 《북의 소행》이라고 밀물아붙인 피괴당국의 발표가 과학성이 없는 《서부른 결론》이라고 함평해나서고 피괴군기무사태가 저 벌어진 사태를 《북군부의 공작》으로 밀어붙일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고있다.

특히 민간에서는 지난해 《천안》 호를 침몰시켰다는 어피추진체에 《1번》이라는 글자가 씌여져있어 《북판련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공격에 동원된 인터넷주소에는 《1》

